

# 친환경 방역체계 본격 가동

## 진안군보건소, 감염병 예방 위한 친환경 연무 소독 실시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는 8일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해 관내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감염병 매개 모기 및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하절기 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본격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8일 11개 읍·면 방역사업 담당자와 방역 요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제 방법 및 방역 약품 사용법, 방역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방역 소독기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방역에

합을 계획이다.

진안군보건소 방역사업은 감염병 매개 곤충 방제를 위한 유충구제, 성충 방제, 해충퇴치기 가동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며, 개인이 신경 쓸 수 없는 공공 영역의 방역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5월 중순부터는 친환경 연무 소독을 11개 읍·면에서 마을 마다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친환경 연무 소독이란 예전 연막소독 방법인 소독약품에 경유나 등유를 혼합하고 연소시키는 방법 대신 물과 소독약품을 혼합해 배사가 거의 없고 연막소독에 비

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살충 효과가 좋아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라영현 팀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 방역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집 주변 빈 화분, 페타이어 등에 고여 있는 물을 없애 위생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역소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3-430-8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적극행정 실현 위한 국비 요청

## 황인홍 무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현안사업 건의

황인홍 무주군수(사진)가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안성~적상(국도19호) 4차로 확장 및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황인홍 군수는 이 사업이 평면 선형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도 위함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덕유산 IC와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4년도 국비로 22억 원을 요청했다. 황인홍 군수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진입 차량의 감속 유도 및 병목구간의 교통흐름 개선 및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에 지원 요청한 현안사업들은 무주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도로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이용객 편의를 위한 사업 발굴은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주민 안전과 교통이용환경개선을 위해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사업별 추진 현황 등을 상세히 공유했다.

먼저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 이어지는 국도19호선의 미정비 도로(4km구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 제7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해줄 것을

### 지역 소식통

####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호우피해 복구현장 점검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가 8일 호우피해를 입은 장수를 대성리 대덕마을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복구 상황을 살폈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장수군에 81.9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5일 오후 8시경 장수를 대성리 대덕마을 마을주차장 측에 일부가 무너져 도로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다음날인 6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시설물 응급복구에 나섰다. 추가 피해가 없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 부군수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우리농산물 토종모종 공급 나선다

## 오늘 군청 후정서 나눔 행사 개최

무주군은 무주토종연구회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온 토종모종 6천주를 9일 군청 후정서에서 군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는 무주토종연구회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집과 증식, 보존에 대한 동참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민들과 나누게 될 토종모종은 칠성초(고추)를 비롯해 가지와 토마토, 상추, 사과참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토종연구회 장영란 회장은 "나눔 행사가 무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 연구회는 앞으로도 더 많



은 토종자원 확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무주군농업기술센터와도 끊임없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토종모종 공급은 무주토종연구회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칠성초, 봉어초 등의 고추 종류와 가지, 대파, 오이 등 8종 1만3,600여주를 공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팀장은 "토종유전자원은 재래종이나 야생종으로 한반도에 잘 적응한 동·식물을 말한다"며 "오랜 기간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환경변화와 병충해에 강한 특성이 있는 만큼 기후변화 속에서 토종자원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토종모종 나눔 행사가 대물림해오던 종자를 비롯해 새로운 유전자원을 발굴하는 계기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개최

무주군은 8일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51회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새기고 '효'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과 윤정훈 도의원, 그리고 복지관 이용자 3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주읍 이정에 씨(53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장한 어버이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적상면 김창치 씨(89세)와 김계자 씨(80세)는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노인'에 선정돼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무풍면 이근철 씨(82세)와 안성면 문정열 씨(81세), 부남면 박윤임 씨(77세)가 무주군의회위원장(장한 어버이)을, 무주읍의 고순애 씨(54세)와 설천면 김용태 씨(56세), 적상면 김미영 씨(51세)가 무주종합복지관장상(효행상)을 받았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절을 사시면서도 가족에게 헌신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셨던 부모님들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고생하신만큼 이제부터라도 좋은 세상, 편안하게 누리시며 사실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신나는 예술여행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이 펼쳐져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참석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8일 군의회 2층 의정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진안군의회 이부라 대표위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장서권 위원, 성진명 위원, 박종영 위원) 등 총 4명을 선임하여,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6월에 예정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업 집행의 적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예산 낭비 사항을 점검을 두고 △202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급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김민규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세심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

장수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종훈 부군수 주재로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 대응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은 연초부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추진해왔던 주요사업들 중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을 분석해 선정된 11개 핵심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안 포함 방안과 7개 중점확보 공모사업의 선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핵심사업은 △동서화합 육십령 가이아미터 조성사업(196억원) △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72억원)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31억원) △백두대간

남만꽃길 조성사업(6억원) 등 11개 신규 사업이다.

중점확보 공모사업은 △장계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120억원) △장계면 도시재생 공모사업(250억원) △목재친화형 도시 조성사업(50억원) 등 7개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751억 원, 확보예산 국비는 1,004억 원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사업담당 부서는 5월 말까지 2024년도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며, 공모사업은 부처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